서울 구민신문
(2026년 11월23일 월요일 7면)

송파구의회 '송파의정연구회'

자원순환 현장방문 및 중간보고회

송파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송파의정연구회'(회장 이승희 의원)는 지난 11월 16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와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어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자원 재사용·재활용과 새활용 분야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송파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문에는 이승희 회장과 이희승 부회장을 비롯해 최옥주·박성희·위정희·김안나·박순례·정성일·정동배·박지선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SR센터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자원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별·해체 현장을 둘러봤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는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새활용 제품과 전시·체험 공간을 살펴보며 버려지는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을 확인했다.

이어 진행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송파구의 자원 재사용·재활용 체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검토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주민 참여를 고려한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의 기본 방향과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파의정연구회는 이번 현장방문과 중간보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 확대와 자원 재사용·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승희 회장은 "자원순환은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현장방문에서 확인한 우수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송파구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송파형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